

Online Series

2024. 02. 07. | CO 24-12

2023년 북한의 대중무역 실태와 그 함의 : 제재 하 무역 확대 쉽지 않을 전망

홍 제 환(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북한경제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루트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경제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가 갖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무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이 북한경제 실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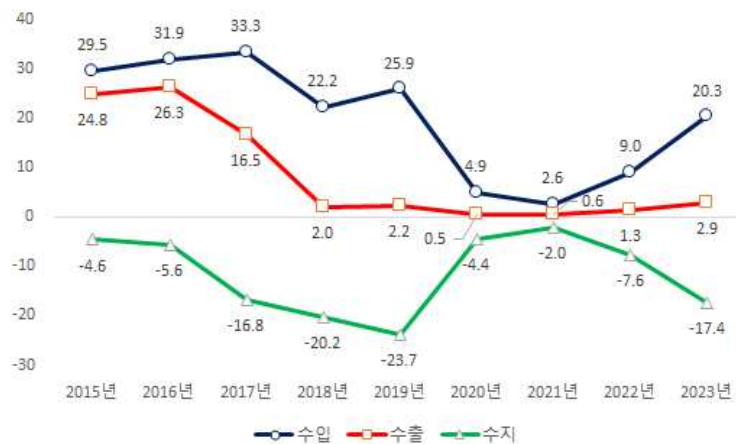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전 무역 규모의 80% 이상 회복

201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급감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데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에 나서면서 무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6년 26.3억 달러에 이르던 대중 수출은 2018년 2억 달러로 급감한 데에 이어, 2020년에는 0.5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수입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8~2019년에는 예년의 60~70%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경봉쇄와 함께 급감, 2021년에는 2.6억 달러에 그쳤다. 예년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2022년부터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수출은 1.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도 9.0억 달러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팬데믹 상황이

점차 개선되자 북한 당국이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뒤, 국경봉쇄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결과였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9억 달러, 수입은 20.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수출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수입도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8~2019년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대중무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이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세(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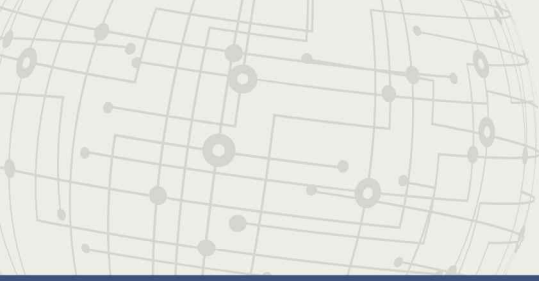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중 대북한 무역 자료(검색일: 2024.2.1.).

가발·인조속눈썹이 새로운 수출주력상품으로 급부상

<표 1>은 2023년 북한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2023년 북한의 4대 수출품목은 가발·인조속눈썹, 합금철, 텅스텐, 전기에너지였다. 이들 네 품목이 북한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것은 가발·인조속눈썹 수출이다. 2023년 북한의 가발·인조속눈썹 수출액은 1억 6,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7.5%에 이르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단일 품목(HS 코드 4자리 기준)의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로 주요 수출품의 수출을 중단한 이후 새로운 수출주력상품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가발·인조속눈썹 수출의 급증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변화일 것이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수출이 급증했던 또 하나의 품목으로 시계 부품이 있었다. 시계 부품은



2018~2019년 북한 최대 수출품이었으며,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2019년에는 수출액이 4,900만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국경봉쇄 조치 이후 수출액이 급감하더니 2023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계 부품 수출은 아직 북한의 안정적인 외화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2023년 북한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추세(단위: 백만 달러)

연도	텅스텐(2611)	전기에너지(2716)	가발·인조속눈썹(6704)	합금철(7202)	시계 부품(9108)
2016	0	6	2	18	0
2017	4	11	9	22	2
2018	18	11	22	28	31
2019	13	11	31	31	49
2020	5	12	2	11	7
2021	1	17	0	27	3
2022	31	20	12	27	2
2023	26	22	167	3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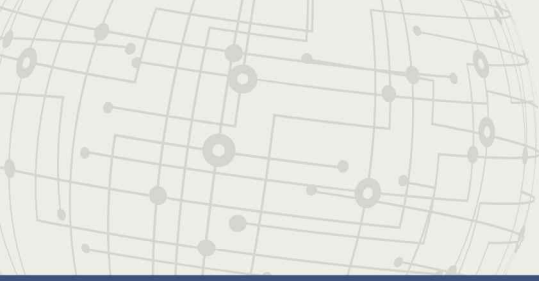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중 대북한 무역 자료(검색일: 2024.2.1.).

주: HS 코드 4자리 기준이며, () 안의 숫자는 HS 코드를 나타냄.

가발·인조속눈썹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3년 북한 수출이 2018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출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수출 증가가 북한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요 수출품이 가발·인조속눈썹, 합금철, 텅스텐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단순가공 및 광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수출에 이어 수입 통계를 살펴본다. 먼저 볼 것은 북한의 중간재 수입 추이다. <표 2>는 북한의 주요 중간재 수입 추세를 나타낸 것인데, 섬유·식품을 제외하면, 수입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료 수입은 8,20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의 평균 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 종이, 세라믹 제품 등의 수입 규모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규모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가발 재료 수입이 2023년



급증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가발 수출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이와 달리 섬유·직물의 수입 규모가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섬유·의류 수출이 금지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간재 수입 규모가 대체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빠르게 증가한 것은 2023년 북한의 산업 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의 주요 중간재 수입 추세(단위: 백만 달러)

연도	비료 (31)	플라스틱 제품 (39)	고무제품 (40)	종이 (48)	섬유·직물 (50~60)	가발 재료 (67)	세라믹 제품 (69)
2016	38	205	79	62	519	3	47
2017	36	231	60	66	587	9	66
2018	85	222	56	64	393	21	58
2019	43	275	63	67	489	30	69
2020	5	36	24	16	49	3	7
2021	24	36	31	9	17	0	4
2022	5	117	62	34	123	18	13
2023	82	212	66	56	258	171	54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중 대북한 무역 자료(검색일: 2024.2.1.).

주: HS 코드 2자리 기준이며, () 안의 숫자는 HS 코드를 나타냄.

이번에는 북한의 소비재 수입 규모를 살펴본다. <표 3>은 식료품, 의류, 신발을 비롯한 북한 주요 소비재의 수입 추세를 나타낸 것인데, 2023년의 변화 방향이 일정치 않다. 곡물, 식용류, 담배, 신발, 가구 등의 수입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제품, 당류, 의약품의 수입 규모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 과일, 의류의 수입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중 수산물과 의류의 경우, 이들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어 수출이 내수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비재 중 일부 품목의 수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긴 했지만, 이는 제재 관련 변수의 영향 탓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소비재 수입 역시 2023년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소비 생활 개선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북한의 주요 소비재 수입 추세(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산물 (3)	유제품 (4)	과일 (8)	곡물 (10,11)	식용유 (15)	당류 (17)	담배 (24)	의약품 (30)	의류 (61, 62)	신발 (64)	가구 (94)
2016	74	2	100	30	99	4	19	13	189	34	49
2017	102	3	67	68	122	39	33	15	159	41	60
2018	71	6	82	92	156	40	70	32	98	41	58
2019	56	4	64	161	144	44	92	46	123	51	75
2020	5	1	8	38	80	32	39	18	6	6	8
2021	0	7	0	1	12	5	24	19	1	0	1
2022	0	5	0	53	63	30	51	43	16	6	12
2023	9	36	12	125	126	74	77	60	92	35	66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중 대북한 무역
자료(검색일: 202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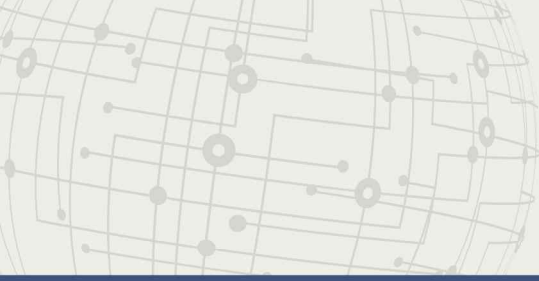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주: HS 코드 2자리 기준이며, () 안의 숫자는 HS 코드를 나타냄.

요컨대, 팬데믹 이후 국경봉쇄로 인해 급감했던 북한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 규모는 2023년에는 예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였고, 이는 북한의 산업 생산 및 주민들의 소비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 자본재의 경우, 북한 당국이 수입대체에 나서고는 있으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북한의 산업 생산이 회복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 규모의 추가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

2024년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4년 이후에도 무역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북한경제의 회복세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림 1>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북한 대중무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북한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18~2019년 20억 달러를 상회했던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는 팬데믹 이후 5억 달러 미만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2년 7.6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23년 17.4억 달러로 급증했다. 무역 규모의 확대가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급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밀수출, 어업권 밀거래, 사이버 금융범죄, 해외 노동자 파견, 무기 거래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므로¹⁾ 2023년 북한의 외화수지 적자 규모는 이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보유고



규모가, 추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재 하에서 북한이 2023년과 같은 혹은 그 이상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장기간 버텨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무역적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북한의 무역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북한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대북제재로 주요 수출품 수출이 중단된 이후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주력상품을 거의 발굴해내지 못한 데에다, 북한경제가 수출은커녕 내수를 충당할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수출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향후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2023년 혹은 팬데믹 직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산업 생산 및 주민 소비 수준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금융범죄, (특히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한 외화 획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 “미국 2차 제재 및 유엔 제재와 북한경제,” 황수환 외,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177~195에 소개되어 있다.